

## 현대 한국 조경작품의 설계 경향에 관한 연구 \*

김 영 대

영남대학교 조경학과

### A Study of Design Trends in Contemporary Korean Landscape Architectural Works\*

Kim, Young-Da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Yeungnam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situation of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in Korea. The conceptual framework of interpretation for landscape architectural works is formulated to define the design trends of today's professional works. The study's analytical method is composed of the survey of attitudes questionnaire, the analysis of design composition techniques and conclusions drawn from the comments of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al critics.

Among 975 members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18 professionals responded to the survey questionnaire. The survey revealed that landscape architects in Korea are concerned about the profession's reduced contributions to the sharpening of the built environment. However, they are optimistic about its future. Ten top design works were selected from the surveys' answers and were analyzed for the design characteristics which could best represent the trends of the last thirty years. Several design critiques and comments about the professional works were cited to reinforce the outlined "-ty" of the contemporary design phenomena.

The study identified the following distinguished design trends of contemporary Korean landscape architectural works. They are as follows: Themelessty, Powerity, Traditionality, Monumentality, Non-contextuality and Over-designity. These trends identify the overall prevailing conditions of Korean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over the past thirty years.

---

\*이 논문은 199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한편, 자료수집과 설문조사 등 이 연구의 진행과 심사 과정에 있어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 제 1 장 서 론

###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경관은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가 땅에 투영되어 경관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건축을 시대의 거울이라고 하지만, 건축은 물론 도시마저도 포용하는 경관이야말로 '땅과 사람의 이야기'를 보다 풍부하게 보여주는 '무대'이다. 즉 단위형태중심의 건축에 비하여 전체골격중심의 경관이 시간적으로 보다 항구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경설계는 이 경관, 즉 무대장치와 배경을 연출하는 행위라 할 만하다. 이 무대장치와 배경에서 조경가는 시대정신을 주제와 소재로 엮는 연출가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과연 조경가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매우 회의적이다. 이 의문은 전문업으로서의 조경이 부딪치는 외부의 한계와 장애를 실감할 때에도 생기지만, 그에 못지않게 과연 조경가 스스로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고 수행하는 지를 되돌아볼 때에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 조경계에서 대개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러한 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사나 연구 결과의 발표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더하여 우리의 조경을 진단하고 조경설계에 관한 사후평가나 전문비평부문도 거의 불모지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경설계가 취해야 할 이념과 가치를 선명히 파악하여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조경양식을 고유하게 구현하는 문제나, 조경이 확고한 예술 장르에 속하는 문제 등은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시대에 우리의 조경설계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또한 조경설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이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 만일 나타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의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를 구체적인 설계결과를 통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 즉 이 연구의 목적은, 지난 30년 간 이루어 낸 우리의 조경작품을 중심으로, 과연 어떠한 설계적 특징이 있으며, 만일

있다면, 그러한 특징이 어떠한 실제 조류 내지는 경향을 이루는 지를 고찰하려는 것이다.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크게 보아 발전적 연구로서, 경향연구에 속한다. 그러므로 대상과 방법에 따라 연구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에 관한 문제로서, 우선 무엇을 '조경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조경작품의 성립조건과 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어떤 조경작품이 한국의 시대적 전체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에 관하여 이 연구에서는 먼저, 조경작품의 요건에 관해서는 조경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되, 그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도 실제 조경작품을 추천케하는 방법을 통하였다. 즉, 여기에서 추천된 조경작품은 곧 우리 조경계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현대란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조경이 도입된 때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보았다. 따라서 추천작품의 시간적 범위를 1960년초에서부터 설문조사일 당시까지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추천된 조경작품들은 단계적으로 해석되었다. 즉 첫째 단계에서는 위의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조경설계를 중심으로 조경계의 위상을 분석하였다. 둘째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추천되어 선정한 조경작품에 관한 구체적인 작품해석을 하였다. 즉, 현지답사와 자료 분석을 통하여 그 설계적 특성을 주로 개념적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며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여기에서 작품의 분해방식을 적용하였다. 분해란 분석적 해석이다. 즉 조경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작품이 지닌 내외적 상황과 설계개념이 어떻게 작품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작품의 결과 자체를 두고 전문가적 안목으로 분해하는 것이다. 이는 크게 보아 해석비평의 일종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방법은 크게 보아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한 집단분석과 현장관찰법에 의한

개인분석으로 구성된다. 즉 경향에 관한 해석비평은 두 단계로 된다. 첫째 단계는, 전체적 흐름을 조망하는 단계로서 이것은 동료비평에 의한 규범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단계는, 특징적 작품에 관한 선별적 분해로서 이것은 전문가비평에 의한 기술비평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개인적 견해가 가지는 객관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에 관한 설문조사의 해석과 함께, 대상조경작품의 작품평, 작품설계의 프로그램 등 객관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참고하였다. 그러함에도 조경설계의 질적 평가에 속하는 이러한 설계 분해는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한계가 엄연히 존재한다.

### 3. 연구사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연구로서는 한국조경계에 관한 것, 조경비평에 관한 것, 그리고 조경설계의 경향에 관한 것 등이 있다. 우리나라 조경계의 상황에 관해서는, 한국조경학회의 설립을 기념하는 한국조경학회지 특집기사에서 우리나라의 조경을 개관하며, 특히 조경분야의 발전상을 정리하고 있다.<sup>1)</sup> 이에 따르면 1970년을 조경계가 정착하는 분수령으로 보았으며, 특히 1983년 이후에 대규모 사업의 추진이 조경계가 발전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 흐름은 한국조경작품을 개관하고 편집한 작품집(한국조경학회, 1992: 8-17)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조경의 세 가지 방향을, ①고유한 우리 전통요소 ②서구의 근대조경사조 ③건축의 영향 등으로 정리하면서도, 한국조경양식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조경설계의 경향을 ①장소맥락주의적 접근 ②기능주의적 접근 ③마스타플랜적 접근 ④조형

주의적 접근 ⑤생태적 접근으로 분류한 관점(정영선, 1993: 19-21) 또한 설득력 있게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조경사업에서 나타난 특징을 ①기념비적 거대주의 ②소우주적 내부지향주의 ③상업적 과시주의로 파악한 바 있다(김영대, 1992). 또한 전문잡지의 특집기사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시대적 상황을 기사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 조경양식의 경향과 과제를 검토한 논문<sup>2)</sup>에서는 공통적으로 우리의 조경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논쟁거리 중에는 조경의 양식 문제, 조경의 예술적 측면, 조경설계의 역할 등이 강조되고 있다.<sup>3)</sup> 이에 따라서 당연히 조경비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나아가서 조경비평의 방법론과 그 도입에 관한 연구가 뒤따르고 있다. 즉, 조경비평의 방법적 유형을 정리하고 한국적 상황에의 도입을 위하여 메타크리티시즘(meta-criticism)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배정환, 조정송 1993: 35-49)

그런데 이러한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조경의 위상과 조류에 관하여 개인적 시각이 아닌, 전문가집단이나 대중의 의견이 수집 정리된 연구는 아직 발표된 바 없다. 본 연구의 과제는 이러한 연구실정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조경설계경향을 파악하려는 한 시도이다.

## 제2장 조경작품의 설계경향 분석과 작품 해석의 접근 틀

### 1. 조경설계의 작품성과 가치체계

어떠한 조경을 '조경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물음 때문에 조경의 정의부터 새롭게 거론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적절한 조경을 정의하고 개념화하여도, 조경작품의 요건은 여전히 상대적인 설계의 질이다. 또한 그러한 정의가 모든 조경

1) 이에 관하여는, 한국조경학회지 제11권 제2호(1983) 및 제20권 제4호(1993) 참조하기 바람.

2) 이에 관하여 월간 환경과 조경 제67호에서 특별기획으로 다루고 있다.

3) 김용규 (1994) "조경은 과연 종합과학예술인가?" 「환경과 조경」, 73 : 138-141., 조정진 (1993) "현대시암조경에서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과 그 의의", 「한국조경학회지」, 49 : 107-124., 유병림 (1989) "디자인과 계획이 같지 아니한 근본적인 몇가지들", 「터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속 환경계획연구소 : 2 : 2 등 참조.

을 작품화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니는 것도 아니다. 현실적으로 조경의 실천은 그 이론의 정립과는 다른 차원이다. 다만 '통속적인' 조경상황을 보다 바람직하게 유도하며, 비록 소수의 조경작품을 통하여서라도 스스로 작품성을 확립하며 타 작품에도 파급효과를 미치려는 것이 '조경작품'을 추구하는 대부분 조경가가 지닌 의도일 것이다. 일반적인 디자인영역에서도 소위 말하는 '굿 디자인'은 흔한 것이 아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는 작품성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디자이너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 세계에서 디자이너의 몫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Papanek, V. 1984: 57-62)이 현실이다. 또한 뛰어난 가치를 지닌 명작은 전체의 건축에 비하여 10%도 안된다는 건축적 상황(이정덕, 1990)도 무관하지 않다. 결국 조경에서도 우수한 가치를 지닌 작품은 매우 극소수인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조경작품의 성립조건 중 첫째는 '가치'이다. 작품성은 그 가치의 유무와 정도에 있다. 가치는 이념에 좌우된다. 가치 중에서도 조경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규범적 가치는 인간사회와 자연세계의 형평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념적 가치이다. 물론 가치는 그러한 규범적인 것 이외에도 존재한다. 실용주의적 가치는 매우 현실적인 조경의 목표이다. 조경설계의 차원에서 그러한 여러 가치는 여러 가지 목표와 기준의 설정에서 표현된다. 따라서 한 조경설계에서 설정된 목표체계를 분석하고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간과 형태 차원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작품으로서의 조경의 질적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이러한 가치의 검토는 곧 조경작품의 질적 평가문제이다.

최근 한 연구(조정송, 안건용, 1993: 29-30)에서 밝힌 조경작품의 기준으로서 우선적으로 독창성을 들며 그 하위기준으로 심미성, 합리성, 공공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평가항목에서는 독창성과 함께 각각 설계과정, 결과물,

내용적, 맥락적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sup>4)</sup> 다른 연구(김영대, 1992: 287-290)에서는 도시조경의 해석기준으로서 공공성, 맥락성, 심미성, 시의성 등을 설정한 바 있다. 무릇 디자인이 근본적으로 미와 실용의 조화이며 현실적으로 기능과 형태의 조화라면, 이러한 기준들은 크게 보아 다를 바 없다. 흔히 인용되는 조경연구의 세 가지 접근, 즉 생태, 행태, 시각 또한 그러한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건이다. 이것은 미학에서 드는 세가지 근본적인 미의 범주 즉, 자연미, 인간미, 예술미(백기수, 1978)와 일맥 상통함을 본다. 따라서 조경작품의 기준 역시 그러한 조경의 질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기준의 적용에서는 완전한 계량적 수단에만 의존할 수 없다. 조경의 작품성은 과학적 업적이나 실용적 산물만으로 따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조경을 순수예술작품으로 치부할 수도 없다.

조경의 정의에서도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은 기실 작품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그런데 기능성은 크게 보아 합리성으로 간주된다. 즉 인조경관으로서 또는 공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간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인조환경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다. 그리고 심미성은 미적 창조와 향유의 대상이자 매체로서의 경관이 지니는 가치이며, 공간이나 형태의 질에서 쉽게 표출될 수 있는 심미적 의도이다. 합리성과 심미성은 조경의 중요한 두가지 가치이다. 더하여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그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다. 공공성은 이런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기준이다. 다만 조경의 영역이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도 존재하므로 오히려 공공성을 포괄하여 윤리적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민간조경이라도 공공성을 따져야 할 경우도 많을 것이나, 공공성의 요체가 인조환경으로서 조경이 지닌 생태적, 행태적 형평성이며 그 정도에 관한 것으로 본다면 무방할 것이다. 더구나 소규모의 개인적 조경은 그 공공성 이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합리성과 윤리성과 심미성의 위계는 기실 진선

4) 이 연구에서 첫째, 기준의 평가가 과연 점수로서 배분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제기되지만, 이러한 계량적 기법은 상대적 평가가 가능할 수 있으며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하나의 대안이라 하겠다.

미의 위계와 일치하는 조경작품의 가치기준이 된다. 그리고 독창성은 창작행위로서의 조경을 추구하는 시대적 가치이며, 시의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시의성이란 작품이 지닌 시간적 적절함이며, 한 사회를 이끄는 '선구자적 가치'인 것이다. 그런데 독창성은 창의성 또는 창조성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기준은 미적 범주와 예술의 영역에서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즉 과학에서 새로운 이론의 공식화나 가설의 설정도 창조적이라 하며, 기술분야에서는 새롭고 보다 세련된 방식의 해결은 창조적인 것이며, 곧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해결로 간주한다. 독창성은 현실성과 성실성을 겸비할 때 비로소 창조적이 된다. (Broadbent, G, 1973: 1-2) 이 현실성이란 공상이 아닌 창작의 현실가능성을 뜻한다. 또한 성실성은 창의력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자세이며 완성하는 추진력이다. 즉 이런 점에서 조경에서의 독창성은 조경작품의 시의적 역할을 표방하며 새로운 설계대안의 파급과 쇄신을 추구하는 총체적 가치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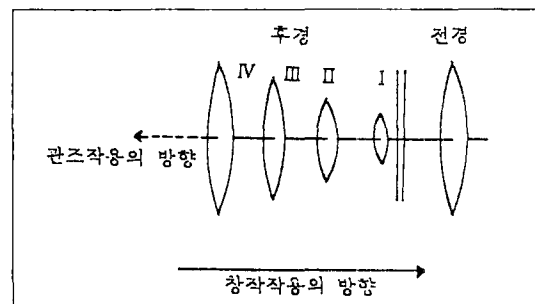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경의 작품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합리성, 윤리성, 심미성, 그리고 독창성을 든다. 이상의 네 가지 가치기준을 체계화하면, 합리성과 윤리성과 심미성이 일련의 축을 이루며 그 전체를 포괄하는 독창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 축은 삼각형의 위계를 이룬다. 그러나 이 기준은 그대로 작품평가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경작품을 이루는 요건 내지 성립조건이 조경작품을 평가하는 판단조건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관의 분석과정을 역으로 한다고 해서 곧 경관의 형성과정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여기에서 '가치있는' 조경작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잣대가 필요하게 된다.

## 2. 조경작품해석과 조경비평적 접근 틀

계획이 과학적 지식의 실천적 활용(권태준,

1974: 19)이라면, 설계는 과학적 지식의 창조적 응용이다(김영대, 1987: 121). 의미의 삼각체에 서 볼때, 설계는 사고로부터 상징에 이르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설계물에 관한 이해는 그 표현된 지시체에서 출발하여 상징을 거쳐 사고로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내면적인 것으로의 탐색은 가치로운 조경작품을 해석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이는 조형예술의 경우, 보다 쉽게 파악된다.

조형예술에 있어서 전경과 후경을 구분할 경우, 관조는 전경으로부터 후경으로 향하는 과정이며 창작이란 후경으로부터 전경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창작의 과정은 추상에서 구상으로, 정신적인 것으로부터 물질적인 것으로의 이행과정이며, 곧 후경의 전경화인 것이다.<sup>5)</sup> (그림 1 참조) 즉, 인간은 사물의 인식과정에서 외부형태로부터 내부 사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림 1) Hartmann의 예술작품에 있어서의 계층구조

조경이 조형예술의 장르에 든다면, 조경작품도 이러한 성층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조경에서 전경은 가시적인 경관으로서 여러 형태요소의 집적이다. 즉 전경은 일차적인 모든 시각현상의 총체적 모습인 것이다. 이 전경을 뒤에 있는 중경은 형태질을 결정짓는 여러가지 조형의 원리와, 공간 및 경관구성의 원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설계기준도 포함된다. 즉 조경설계의 하위 목표체계인 것이다. 이 중경 뒤의 후경은 설계의

5) 이것은 Nicolai Hartmann (1882-1950)의 예술작품의 계층분석에 의한 것이다. N.하르트만, 전원배역 (1969) 「미학」, 을유문화사: 4-6. 참조

도와 목적을 포함하는 상위목표체계를 비롯하여 작가정신, 시대정신과 풍토색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 성층이 그러한 각각의 요소들 다 망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때 성층의 구조는 설계과정의 계층적 구조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조경설계는 그 의도인 후경으로부터 전경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이 성층을 서로 이어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역의 흐름, 즉 관조는 조경작품에 관한 비평적 일환이며, 조경창작의 역과정이다. 그러나 이 두 방향의 계층이 동일한 축 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앞에서 논의한 바, 분석의 역이 곧 종합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조경비평의 방법론적 구분으로서 규범적 비평, 해석적 비평, 기술적 비평(배정한, 조정승, 1993: 41-44) 을 드는데, 이 역시 위계적 구분으로 볼 수 있다. 조경작품에 대한 기술적 비평은 이 중 가장 하위의 비평방법으로서 조경작품 자체에 관한 사실적 묘사이다. 즉 가치 개입이나 선택적 주장이 없이, 조경작품이 표출하는 여러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경우이다. 그 다음의 해석적 비평은 조경작품에 묘사된 사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단계의 비평방법이다. 이때 해석적 비평은 사실에 대한 이론적 규명으로서, 조경작품에 대한 '의도적 번역'이다. 규범적 비평은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서 조경작품이 추구하는 가치, 정신, 철학, 윤리 등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다룬다. 따라서 이 세가지 비평방법은 그 비중의 차이를 막론하고 상호 위계적 구조를 이루는 조경비평의 유형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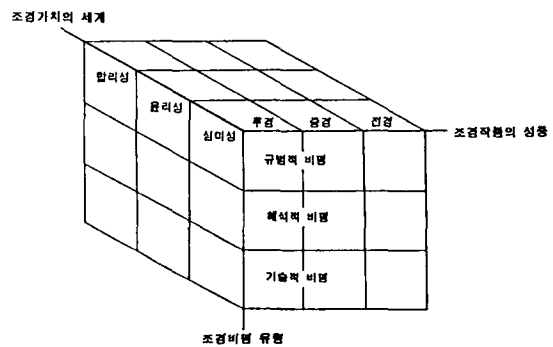
그런데 조경작품의 성층과 조경비평의 유형을 관련시키면, 기술적 비평은 주로 전경에서 조경설계의 요소와 재료 등을 논할 수 있으며, 해석적 비평은 주로 중경에서 조경설계의 원리와 원칙, 기준 등을 논할 수 있으며, 규범적 비평에서는 주로 후경에 존재하는 조경설계의 목적과 배경, 작품적 맥락 등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2 참

	전경	중경	후경
기술적 비평	●	○	○
해석적 비평	○	●	○
규범적 비평	○	○	●

(그림 2) 조경작품의 성층에 따른 비평유형 (● 우선적, ○ 부수적)

조).

나아가서 조경작품의 성층과 조경비평의 유형이 이루는 관계구조에 조경가치체계의 축을 연결하면, 세가지 축을 이루는 '조경작품해석의 개념적 틀'이 가능하게 된다. 이 개념적 틀에서는 중심으로 갈수록 보다 형이상학적인 것, 추상적인 것, 개념적인 것, 그리고 심미적인 것을 다룬다. (그림 3 참조). 이 틀은 특정한 조경설계의 이해와 그 작품적 해석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차원을 조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가치가 있다고 본다. 즉 작품 내용을 개관하는 '점점모형'인 것이다.



(그림 3) 조경작품해석의 개념적 틀

조경을 장인정신과 이론과 예술적 감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직으로 파악하였던 Baljon은 도시공원의 설계분석을 위한 기법으로서 설계분해의 개념을 적용한 바 있다<sup>6)</sup>. Baljon의 그러한 도시

6) 그는 설계분해의 네가지 기법으로서, ① 그래픽구성으로서의 분해 ② 배치와 공간진밀성의 분해 ③ 설계원칙의 분해 ④ 설계양식의 분석 등을 제시하였다. Baljon, Lodewijk (1992) *Designing Parks*, Amsterdam, Architectura & Natura Press : 50-160.

공원의 설계분석기법을 참고하며, 앞에서 설정된 조경작품의 해석적 개념적 틀을 발전시키어 '조경설계의 경향분석을 위한 접근 틀'을 구성하였다. 이 틀은 곧 조경설계의 해석에 관한 총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너무도 포괄적이며 다양하고 다중적인 조경을 모두 섭렵하여 한꺼번에 분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조경작품이 이루어질 때의 상황이나 의뢰인의 요구조건, 시공간적 맥락, 예산 및 법규의 제한 등을 충분히 파악하며 나아가서 동시대의 타작품과도 비교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특정관점, 즉 여기에서는 조경설계의 경향분석을 중심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설계분해방법을 통한 조경비평적 접근이며, 이 때 구체적인 조경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분해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이 필요

하게 된다. 이 방법의 적용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또한 대상작품들에 대하여 기 발표된 조경비평을 가능한 한 수집하여 본 분석에서 중요한 자료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 제3장 현대 한국 조경작품의 설계 위상 분석

#### 1. 분석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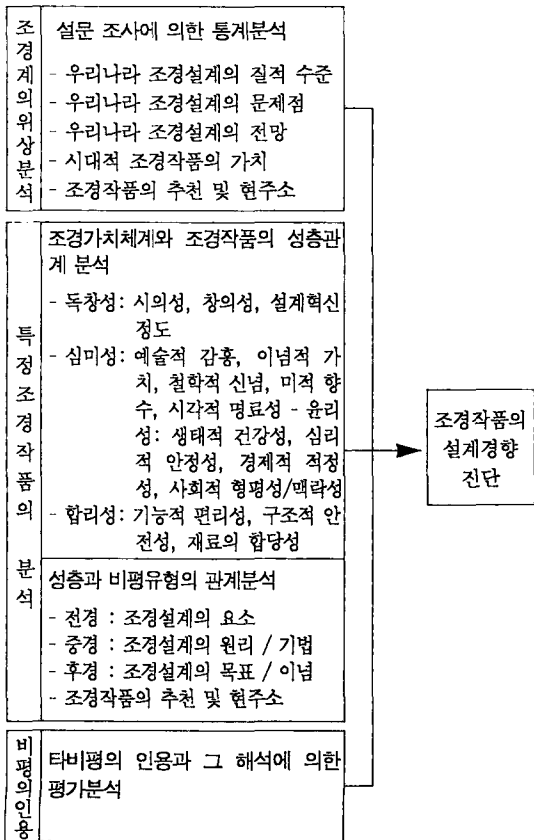
본 설계위상의 분석은 설문조사 방법에 의하였다. 설문조사는 1994년 7월 15일에서 8월 15일 사이에 전국 조경인 총 975명을 대상으로 우송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이 조경인은 조경관련 종사자와 학생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국조경학회 정회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신상에 관한 6 문항과 우리나라의 조경설계에 관한 5 문항 및 1960년대 이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조경작품의 추천을 위한 1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부록 1참조). 설문응답지는 조사기간 중 모두 318장이 회수되어 32.6%의 회수율을 보여 비교적 우수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 중에서 오류가 있는 응답지와 늦게 회수된 응답지 등 13장은 본 분석에서 제외되고, 총 305장이 분석처리되었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SPSS Pc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2.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 1) 응답자의 신상에 관한 분석

〈문항 A-1〉에서 응답자 나이의 분포를 보면, 총 305명 중 20대가 89명 (29.2%), 30대가 123명 (40.3%), 40대가 60명 (19.7%), 그리고 50대 이상이 33명 (10.8%)을 차지하고 있다. [부록 2-1] 〈문항 A-2〉에 의한 성별조사에서는 남자는 267명 (87%)이며 여자는 38명 (13%)이다. [부



(그림 4) 조경설계경향 분석을 위한 접근 틀

## 록 2-2)

〈문항 A-3〉의 직종에 관한 응답에서, 설계직 종사자는 101명 (33.2%), 시공직 종사자는 38명 (12.4%), 설계전공 교수에는 25명 (8.1%), 설계 외 전공교수에는 38명 (11.7%), 대학원생이 53명 (17.3%), 공무원이 31명 (10.1%), 조경관련 언론인이 2명 (0.7%), 기타 19명 (6.2%)로 나타났다. [부록 2-3]

경력을 묻는 〈문항 A-4〉에서는 총 305명 중 273명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144명 (52.7%), 10년에서 20년 사이가 102명 (37.4%), 20년에서 30년 사이가 23명 (8.4%), 그리고 30년 이상인 경우가 4명 (1.5%)로 나타났다. [부록 2-4]

활동지역을 묻는 〈문항 A-5〉에서는, 총 305명 중 응답자 대부분이 특정 시나 도지역으로 응답하였으나, 오답이 13명 (4.9%) 있으며, 전국으로 응답한 경우도 11명 (3.6%)이나 되었다. 시도 지역 응답은 1위인 서울지역이 161명 (52.4%), 2위인 대구지역이 26명 (8.5%), 3위에는 광주지역으로 12명 (3.9%), 4위에는 전남지역 및 충청지역으로 11명 (3.6%)이며, 그 다음에 경기, 부산, 인천, 경북, 경남, 대전, 강원, 전북, 제주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런데 서울지역 이외에는 자료부족으로 분석이 무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록 2-5]

〈문항 A-6〉에서 78명이 국외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국에는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동남아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주된 활동으로서 연구, 견학, 여행, 유학, 설계/기획, 시공, 사업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2) 조경설계의 위상에 관한 응답 분석 및 고찰

〈문항 B-1〉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질적 수준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매우 긍정적”이 3명 (1.3%), “긍정적”이 59명 (19.3%), “보통”이 122명 (40.0%), “부정적”이 106명 (34.8%), 그리고 “매우 부정적”이 15명 (4.9%) 등으로 분석되었다. 나이가 비교적 젊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설계전공 교수와 대학원생이 보다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록 2-6] 한편 경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에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보통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B-2〉에서 장래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전망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나이나 성별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매우 낙관적”이 6명 (2.0%), “낙관적”이 133명 (43.9%), “보통”이 80명 (26.1%), “비관적”이 80명 (26.1%), “매우 비관적”이 6명 (2.0%)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시공직 종사자나 경력이 30년 이상인 경우 지역적 구분으로 볼 때에 강원지역에서는 비교적 비관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전반적인 결과는 앞으로 현수준보다는 보다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부록 2-7]

〈문항 B-3〉에서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질적 수준에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응답자 중 170명 (56%)이 건설현장에서 조경부문이 열세인 점과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을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 52명 (16.9%)은 실제에 관한 가치부여 미흡, 46명 (15.0%)은 조경설계가의 자질문제, 37명 (12.1%)은 전통조경보다 외국조경의 영향에 민감한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30대 이상, 대부분의 직업, 경력이 낮을수록, 대부분 지역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조경부문의 열세를 문제시 하였다. 30대 미만과 조경설계 전공교수, 경력 20-30년 사이의 응답자는 조경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을 더 문제시하였다. 경력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조경의 영향을 더욱 문제시 하였다. 이외에 지역적 맥락으로 볼 때에 서울지역에서는 설계가치 부여문제를 제시한 반면, 경북지역에서는 사회적 인식문제를 더 문제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록 2-8]

〈문항 B-4〉에서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는 106명 (34.9%)이 현실조건에 대한 실천적 탐구의 필요성을, 94명 (30.9%)은 조경설계가의 교육강화를 통한 능력 배양 (94명, 30.9%)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조경설계 용역비의 증대 (39명, 12.7%), 공정한 공개경쟁



기회의 확대 (34명, 11.1%), 조경비평과 논쟁의 활성화 (32명, 10.4%)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30대 미만의, 여자, 설계전공교수 및 대학원 학생들은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조경설계가의 교육을 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경력이 많을수록 현실 조건에 대한 실천적 탐구를 비교적 더 중요시 하고 있는 반면에, 지역적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경기도 지역은 조경설계의 교육문제를, 강원도 지역은 조경설계 용역비 증대를, 부산지역은 공정한 경쟁기회문제를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록 2-9]

〈문항 B-5〉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경설계가 구비해야 할 가장 절실한 작품적 가치에 관한 문제로는 응답자 중 106명 (34.9%)이 기능적이고 행태적으로 합리적인 설계를, 90명 (29.6%)이 생태적으로 보전지향의 설계 등 두가지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의 사항으로는 사회공공적으로 윤리성을 갖춘 설계 (39명, 12.7%), 심미적인 예술성을 갖춘 설계 (37명, 12.1%), 실험적인 창의성이 뛰어난 설계 (33명, 10.7%) 등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기능과 행태적 합리성에 있어서는 연령과는 상관 없이 대부분의 응답자가 중요시하게 느끼고 있으며, 전공교수, 대학원 학생 및 30년 이상의 경력자들은 생태적 보전문제를 보다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록 2-10]

〈문항 B-6〉에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조경작품의 추천에 있어서는, 모두 39개소가 추천되었으나, 미응답이 102명 (33.4%)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그 주된 이유로는 추천할 작품이 없었다는 점이다. 응답자 중 51명 (16.7%)이 올림픽공원을, 36명 (11.8%)은 파리공원을, 19명 (6.2%)은 한국종합무역센터를 선정하였으며, 이외에 현충사와 경주 힐튼호텔이 공동으로 5번째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분당중앙공원, 경주보문단지, 용산가족공원, 예술의 전당, 중계썬지공원 등이 모두 10위권 이내에 포함되었다. 연령 별로 본 결과로는 20대가 파리공원을, 30-40대는 올림픽공원을, 50대 이상

은 한국종합무역센터보다 많이 추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품추천에 있어서 남녀 구분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설계직 종사자와 대학원학생들은 파리공원을, 시공직 종사자는 한국종합무역센터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력상 구분으로 분석할 경우 10-20년 경력자는 파리공원을, 20-30년 경력자는 현충사를 각각 높게 평가하였다. [부록 2-11]

## 제4장 현대 한국 조경작품의 설계내용 분석

### 1. 조경작품의 분석방법

본 장에서는 제3장의 설문조사에서 추천된 조경작품 중에서 상위 다수인 열개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그 설계 내용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분석방법은, '조경설계경향 분석을 위한 접근 틀'에 의거하여, 조경작품의 성층 사이의 연계를 중심으로 조경가치체계에 관하여 조경비평을 유형별로 시도하였으며, 나아가서 분석된 결과 두드러진 작품의 내용을 종합하여 공통적인 특성을 추출하여서, 이 결과는 조경설계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즉 첫째 단계에서는, 대상작품의 후경에 존재하는 조경설계의 목표와 이념이 중경에 나타난 조경설계의 원리 또는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또한 이 원리 또는 기준이 전경, 즉 가시적인 형태와 경관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추적하였다. 둘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파악된 각 대상작품이 지닌 두드러진 설계적 특성을 상대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조경설계의 유사성을 구체화하였으며, 어떤 유형이 나타나는지 분석되었다. 특히 공통적인 특성은 전체 설계경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즉 본 조경작품의 설계해석에서는, 각 작품이 지닌 내용과 형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여 그 공통적 성질을 부각하여 이 시대적인 경향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또한 각각의 조경작품이 지닌 개성을 유형화하여 그 어떤 부수적

<표1> 열개 조경작품의 일반 개황

구분	현충사	경주보문단지	파리공원	올림픽공원	한국종합무역센터	경주힐튼호텔	중계쌔지공원	예술의 전당	용산가족공원	분당중앙공원
조성시기(연도)	1972	1979	1987	1988	1988	1991	1991	1992	1992	1993
규모(m <sup>2</sup> )	662,233	1,056,000	29,714	1,691,854	196,997	27,575	356.4	172,687	96,000	470,560
종류	문화재	관광휴양지	기념공원	종합스포츠공원	오피스조경	호텔조경	근린소공원	문화/공연시설조경	도시근린공원	근린공원
조성유형	정화, 복원	신개발	아파트단지 내 신설	도시외곽지 에 신개발	도시개발	관광지내 신축	재개발/ 찌투리땅이용	도시자연녹지 내 신축	미군시설의 전용	신도시개발

인 설계경향 내지는 설계양식 정착의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을 위하여 현장답사에 의한 관찰조사가 진행되었다. 보조적으로 설계도면과 설계개요 등의 도서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현장에서 수집한 것과 보고서, 전문잡지 기사 등에서 발췌하였다.

결국 일반적인 조경설계 형식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디자인요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새로운 디자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기법이 응용되었고, 어떤 이념이 추구되었는지를 해석하려는 것이다.

2. 대상작품의 분석 결과

열개의 조경작품을 개관하면, 그 성격과 규모, 조성시기, 입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용도 또는 기능의 차이이긴 하지만, 설문조사의 추천에서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난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다. 조성시기와 규모 간의 관계를 보면, 1972년 현충사를 시작으로 하여 1979년의 경주보문단지, 1988년의 올림픽공원 등 1970년대에 시작하여 전체 기간 중 전반기의 작품에 그 면적과 시설이 대규모인 것이 많게 나타났다. 이것은 조경의 정착에 국가적 수준의 사업이 큰 기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1990년대로 오면서 점차 소규모의 조경작품이 추천되었

<표2> 열개 작품이 지닌 주요시설과 주수종

구분	현충사	경주보문단지	파리공원	올림픽공원	한국종합무역센터	경주힐튼호텔	중계쌔지공원	예술의 전당	용산가족공원	분당중앙공원
공통적 성격의 시설	정문 휴게소	각종광장 등산휴게소	잔디광장 중앙가로광장 각종마당 휴게녹지	중앙진입로 중앙광장 휴게녹지	중앙광장 각종광장	주진입로 광장	진입광장 다목적광장 휴게소	야외극장 만남의 거리	중앙광장 현관광장 잔디지역	잔디언덕 광장 등산
사용된 한국 전통 양식의 명칭	내삼문 통영문 홍살문 신정문 활터 농막 등가대 정려	서라벌광장 전통물레 방아광장 전통한국 성곽축성 우물연지 상징석 전통초가	영지 총림 한불마당 서울마당 파리마당	몽촌토성 민속공연장 풍납 해자	투영지 연못 폭포	고산수정원 포석정분수	인경(상징 조형물) 팔래터 축제마당	장터 한국정원	삼천리로 오천년로 금수강산로 12지상로 마당 한라연못	전통마을 분당지 팔각정 고인돌정원 역말꽃마당
주수종	가브리 향나무 눈향나무 리기다 소나무 반송 메타세 콰이어 잣나무 모과나무	철쭉 영산홍 매화나무 수양버들 감나무 무궁화 벚나무	적송 회화나무 배롱나무 살구나무 느릅나무 갈참나무 젓나무 칠엽수 메타세콰이어 물푸레나무 밤나무	소나무 느티나무 영산홍 회화나무 의 다수	소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회화나무	철쭉 홍단풍 대나무 은행나무 난 아레카야자	느티나무 잣나무 아카시아	감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주목	잣나무 소나무 수양버들 아카시아	느티나무 참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산벚나무 흰말채 물철쭉

〈표3〉 열개 작품의 목표와 개념에 나타난 주요 용어

구분	현충사	경주보문단지	파리공원	올림픽공원	한국종합무역센터	경주힐튼호텔	중계섬지공원	예술의 전당	용산가족공원	분당중앙공원
주요 용어	민족의 성역 충무 정신의 함양	역사적 전통의 보존유지 고유문화와 현대 문화의 조화	수교기념 평화 이해 교역 실용성과 기념공원의 편의 상징성	역사전통 체육과 역사의 조화 다양한 체험 사계절 이용	선진화 정체성 이미지구현 쾌적성 연결성 통일성 독자적특성 활성화	상징 이미지 유희공간	마당 공동생활 향토적 토속적 동질적 분위기 문화·복지 환경 한국적	문화와 공원 동질성 이미지 전통정원 재현 전천후공원 예술	기존자연 지형이용 민족공원 민족주체성 녹지체계 연결	풍요로운 경관 유기적 공간 쾌적 조화 자연 보전 편의 기존지형 도시성 전통미

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주된 성격은 문화재복원에서부터 스포츠경기장, 관광단지, 도시공원, 호텔 등이며 크게 분류하여 공공조경이 여덟 곳으로서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전체로 보아, 성격과 규모가 다양하며, 이 결과는 추천된 작품이 그 내용적 질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열개의 대상작품의 기본계획도 또는 종합계획도에 나타난 범례를 그 종류 별로 분류하여 서로 비교하면 각 작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시설이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각 작품의 종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 진입로와 광장이 다양한 명칭으로 그 중심적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 의미를 지닌 시설 또는 장소의 명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현충사와 같은 문화재는 물론이고 기념공원이나 심지어는 보통의 근린공원인 분당중앙공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며 또한 그러한 전통양식의 설계를 추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작품 내에서 공간과 시설을 어떠한 이름으로 '명명' 하려는 경향과 소위 한국식 내지는 전통양식을 재현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며, 때로는 특색 있는 자연풍경이나 지형을 따라서 명명하는 경향도 있다. 더하여 대개 건물이 전체 부지의 중심 내지는 전면에 입지하여 여전히 건축주도의 공간 구성방식이 우세한 것임을 보여준다.

열개의 작품에서 주로 식재된 조경수는 점차 상록수중심에서 낙엽수중심으로 되었으며, 소나무, 느티나무 등이 주로 나타났다. 식재기법으로서는 크게 나누어 구릉지에서의 '자연적 배치'와

광장 등 포장지에서의 '정형식재기법'과 경계지의 차폐식재기법 등이 별 차이 없이 그대로 응용되고 있다.

열개 작품의 설계목적, 목표 또는 설계개념에 나타난 용어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조경설계의 결과는 비록 전경의 여러 가지적인 구성, 즉 경관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때 사용되는 용어, 즉 설계용어는 의도하는 결과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용된 용어는 곧 각 조경설계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개념이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경작품 속에 많이 나타나는 용어로서 1970-80년대에는 성역, 전통, 역사, 기념, 통일성 등인 반면, 1990년대에는 자연과 인공, 한국문화, 문화예술, 화합, 유기적 등이 자주 나타났다. 즉 조경설계가 역사전통의 과제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개인과 자연 중심의 과제로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위 '한국적인 것의 추구'는 전체적으로 계속되어 나타났다.

나아가서 각 작품의 설계단계에서 보다 깊이 추구된 설계이슈, 즉 설계의 과제는 대개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작품에 따라서는 그 주제와 성격과 입지 등의 형편에 따라 특정한 이슈가 보다 중요하게 검토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추구한 설계주안점, 즉 작품적 가치를 보여주는 설계의 이슈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기념'과 '생태'와 '행태'가 두드러지게 등장하며, '역사'와 '기념'에서 점차 '행태'와 '생태'로 옮겨지며, 최근에는 '미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표4〉 열개의 작품에서 나타난 주요설계어휘

구분	현충사	경주보문단지	파리공원	올림픽공원	한국종합무역센터	경주힐튼호텔	중계섬지공원	예술의 전당	용산가족공원	분당중앙공원
두드러진 설계어휘	상징	고유문화와 현대 문화의 공존	중심축장 소화교차 상징성조형적이음 만남 경물 중첩	조화 음화 통합축 이원화	통일성위계 연속성 이미지 폐적성 정체성 중핵	현대적해석 상징성 캐노피음화공간,	소공원 공유 동질성장 조성	유기적연관성다원적기능 전통재현 다양한 활동수용 공공적	녹지체계의 연결고리	보도축과 녹지축 전통조경 양식군락적 식재 유기적 공간구성

다. 그런데 이 분류는 매우 상대적이며 또한 개략적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각 작품에서 나타난 설계어휘가 그대로 작품의 결과물, 즉 설계에서 충실히 혹은 적절히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거나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주된 이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하여 그러한 이슈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 설계이념의 구현과 설계과정의 발전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각 작품에서 나타난 설계어휘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중심적인 설계어휘는 곧 그 작품이 지닌 성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때에 따라서는 작품의 보고서에 명시한 '설계목표' 혹은 '설계어휘'가 실제 조성된 결과에서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는 경

우도 있다. 이것은 설계과정과 조성단계에서 지적되어야 할 '설계 오류'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작품이 지닌 조형성과 경관구성의 원리, 즉 조경설계의 두드러진 특성을 각 배치도를 중심으로 분해하였다. 즉 설계차원에서의 공간구성유형과 지형 및 시설입지의 관련성과 동선체계 등의 중요한 설계내용을 각 배치도 또는 평면도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 분석은 앞에서 밝힌 바대로 Baljon의 설계분해를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그림4 참조)

이상의 분석에서, 각 작품이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설계적 특성을 비록 상대적이거나 비교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곧 조경작품의 설계경향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 <표 5 참조>

〈표 5〉 열개의 작품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설계 특성

구분	두드러진 설계 특성
현충사	자연경관의 보존과 복원, 자연지형의 존중, 전이공간의 형성, 격인 축, 공간의 위계형성, 차폐 및 경관식재
경주보문단지	인위적 자연경관, 전통경관의 현대화, 도로조경의 활성화, 대규모 관광단지조경설계, 역사경관의 관광상품화, 확대된 문화경관
파리공원	주관적 구성, 이원화된 기념조경, 건축의 경관장식화, 에워싸에 의한 소우주적, 바닥패턴, 상세 등에서 나타난 전통한국조경의 근대화 기념의 친밀성 추구, 축의 활용
올림픽공원	대규모적 조경, 이원적 공간구성, 자연과 전통의 조화추구, 자연경관의 회복, 문화재경관의 풍경화, 건축과 조각과 조경의 물리적 혼합경관, 기념비적 대규모경관, 장축과 랜드마크에 의한 접근성 증대
종합무역센터	도시맥락에 대응적, 획일화한 공간적 다양성, 물방주의적 거대주의, 건축부합적 도시조경, 개방적 비개방, 대칭과 단축, 정형적 공간구성, 도시성과 접근성
경주힐튼호텔	건축의 연장, 진입경관과 공간의 변화감, 제절감, 상세처리, 도형적, 단순식재, 대비효과
중계섬지공원	도시사회적 맥락, 과잉한 국수주의, 형태의미주의, 인간적 척도, 행태조경
예술의 전당	건축과의 연계, 한국전통조경의 재현, 외부공간의 연계와 단절, 건축적 조경, 도시대응적
용산가족공원	도시녹지 회복차원의 상징, 구릉지조경, 개방적 오픈스페이스, 자연풍경식
분당중앙공원	자연경관 속에서 전통 모색, 구릉지조경, 건축과 시설의 배경적 조경, 자연보존의 상징, 다양한 주제공간의 혼용

## 제5장 현대 한국 조경작품의 설계 경향

이 장에서는 제3장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설계 위상의 분석결과와 제4장 설계 내용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서 동시에 조경비평사례를 인용하여서 이 시대의 우리나라 조경작품설계경향으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이 시대를 대변하는 경향이라고 할만한 조경설계차원의 뚜렷한 양식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설계내외적으로 몇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났으니, 이것을 ‘—성’으로서 대별하고자 한다. 즉 조경설계 자체에서 나타나는 양식 내지는 특성은 별로 없이 설계 외적 변수가 큰 것도 하나의 특징인 셈이다. 이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무주제성, 권력지향성, 전통답습성, 기념비성, 비맥락성, 과설계성을 들 수 있다. 이 특징은 아직 시대적 양식으로 완성된 것도 아니며 보편적인 추세라고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열개의 작품에서는 물론 빈번히 나타나는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주된 경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1. 無主題性: 주제가 있는 작품이 희소한 경향

무주제성은 땅을 다룬다는 조경의 근본적인 과제를 무색하게 하는 부정적 경향이다. 즉 무주제성은 조경설계의 질적 가치에 관한 것으로, 조성된 조경, 즉 인조경관에서 그 특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설계양식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조성된 인조경관은 본래의 내용적 주제와 형식적 결과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과 결과가 설계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의 인용에서 잘 나타난다.

“... 30여년을 거치면서 작품상에 질적인 발전과 향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은 재료나 소재, 공법 등 물질적인 면에서 좋아졌다는 것이지 어떤 설계양식이나 사조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보이거나 우리 시대의 조경양식으로 부각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처해온 시대

적·지리적 상황으로 보아 조경분야가 이제 정착의 과정을 겪고 완숙의 단계로 발전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규목, 1992: 8)

이 과도기라 함은 현 조경상황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태도라 하겠다. 그러나 현대대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외국의 유행이나 새로운 사조가 쉽게 유입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과도기의 단계가 너무 길어서 조경설계가 보다 ‘무색적 경향’을 띠는 것을 용인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보다 비판적 관점은 다음 글에서 잘 나타난다.

“...현대의 한국 조경작품에서 별다른 경향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 우리의 조경은 무질서한 자유를 함락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배정환, 조정승, 1993: 48)

나아가서 이러한 무주제성 경향은 결국 조경설계의 전문성까지 문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조경설계가 대량생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임을 감안한다면, 한 작품에서 주제의 표현은 조경을 창작의 장르로 이끄는 것이다. 다음의 글에서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과연 조경이 고급조형예술 내지는 전문 창작분야로 인정받고 있는나하는 점, 설계어휘 또는 설계의 깊이감이나 다양함이 있는가...” (김영대, 1993)<sup>7)</sup>

결국 무주제성은 엇비슷한 조경작품에서 나타난다. 앞장에서 분석된 열개의 작품 중 그 조경작품만이 지닌 독특한 양식 또는 설계아이디어를 분별하기란 쉽지 않다. 한 작품 속의 경관은 대부분 다른 작품 또는 이국적 경관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어디에서 본듯하다”고 한다면, 그 작품은 이미 고유함을 상실한다. 대부분 ‘옴스테드식 풍경경관’이나 ‘구성주의식’ 혹은 ‘전통조경양식’의 재현이다. 비록 작품마다 다른 소재를 사용하며 프로그램이 다르다할지라도, 나타난 경관이나 모양이 좀 다를 뿐이다. 수중이나 삼세설계는 거의 비슷하며, 크게 보아 설계원리의 차이를 확인하기는 쉽지않다. 설계의 깊이감, 가치의 발현이 두

7) “조경문화와 평론”에 관한 좌담회(1993) 「환경과 조경」, 58 : 46 참조하기 바람.

드러지지 못한다.

나아가서 지역적 특성을 설계에서 잘 보여주는 예도 드물다. 경관이 곧 '땅의 연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생태적 가치를 따지지 않더라도 지역 특성이 설계적 표현으로 잘 나타나는 예가 드물다. 또한 비록 나타난다고 하여도, 그것은 지역특산의 소재응용이나 토질을 따지는 정도이다. 그것은 '한국적 국제주의'의 결과이다. 영세한 소재의 한계점도 작용한다. 결국 무주제성은 무양식주의와 상통한다. 다음의 글은 올림픽공원이 큰 기여를 감안하면서도 그 설계적 차원에서 나타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올림픽공원이 서구의 근대 조경사조에서 온 설계개념 또는 철학을 특별한 갈등없이 소화시키고 있는 반면...” (김성균, 1993)<sup>8)</sup>

이 무주제성의 문제는 곧 조경작품의 가치체계에서 볼 때, 독창성의 부재를 뜻한다. 설계혁신을 기하는 작품이라든지, 외국의 양식이나 사조를 극복한 창의적인 작품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경계에서 선도하는 역할이나 사회 수요에 응하는 방법으로 그 적절한 시기에 선구적인 작품을 보여주는 시의성의 문제도 된다. 즉 개척자적 설계의 역할을 결핍한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조경작품은 큰 새로운 시도가 없이 '획일적 다양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무주제성의 원인으로 조경설계의 창의성 부족, 소재의 한계, 소위 우수한 작품이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 조경설계 모방의 범람, 조경설계의 미분화와 깊이감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무양식의 양식, 주제없는 경관의 조성, 비슷한 다양성의 연출 - 이러한 것은 현대 한국 조경설계가 지닌 부정적인 특성의 하나이다

## 2. 權力志向性: 작품이 관료주의적 관행에 따르는 경향

권력지향성은 조경설계의 과정에서 의사결정

권자의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빚어내는 조경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권력지향성은 건축주 또는 고객의 입장에서, 특히 관료주의적 환경에서 조경설계 자체에 개인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적 권력지향성'과 조경설계의 결과가 특정한 의도를 지니고 있어서 이용자의 경외심이나 복종을 강요하는 '결과적 권력지향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권력의 주체는 제왕과 군주는 물론 관료, 종교, 자본, 정보 등으로 볼 수 있다. 지식 또한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기에 조경가 역시 전문가로서 권력지향적 설계를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조경설계에서의 의사결정이 설계가의 독자적이며 일방적인 경우에 한해서이다. 왕의 권위를 과시한 베르사이유조경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현대 우리의 조경에서도 권력지향적 경향을 볼 수 있다. 현충사조경에 관한 고박정희대통령의 '지침'은 일반지침과 세부지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는 그대로 설계기준이 될만큼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지침에는 의외로 생태학적이거나 시각경관 구성적인 사항도 있어, 조경의 도입기 단계에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문제는 아무리 우수한 설계지침일지라도, 그 의사결정의 방법 자체에 있는 것이다. 권력주의의 결과는 다음 두 글에서 지적하듯이 조경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랜 사회적 요구가 축적되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최고권력자의 지시에 의해 인위적으로 법적, 학제적인 틀을 갖추어 생겨난 조경으로서는 건축, 토목, 도시계획 등 인접분야와 사회적, 객관적인 관점에서 각 분야가 공히 인정하는 정확한 업무구분의 과정이 생략될 수 밖에 없다는 속성을 지니는 것이다.” (정영선, 1993)<sup>9)</sup>

“우리나라 조경이 관주도형으로 태동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작용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앞으로 설계, 시공 등 모든 분야에서 획일성을 지양하고 전문성의 인정과 창의성의 개발에 힘써 우리나라 조경이 다양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동철, 1986)<sup>10)</sup>

8) 한국조경학회 편 (1992) 「전계서」, 99.

9) 정영선 (1993) 「전계서」, 15.

10) 좌담회에서 (1986) “한국조경의 현황과 미래를 진단한다.” 「환경과 조경」, 12 : 35.

물론 전문업계의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조성하는 외적 영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글은 그러한 점을 수용하고 있다.

“학계나 업계에서 그만큼 호응을 했기 때문에 발전을 한 것이고 ... 판이 점차 역할을 했다...” (김영구, 1986)<sup>11)</sup>

그러나 자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권력지향적 분위기는 조경설계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두 글에서 1960-70년대의 조경계와 그 상황이 정부 권력의 지대한 영향력 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현대조경의 큰 특징적 사조를 파워리즘(Powerism)으로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 이는 절대적 힘의 논리에 의해서 조경양식이나 개성이 표출되는 경우로, 최고결정권자(권력이나 경제력의 절대권자)의 선택 판단기준이 과학적 논리적 대안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지는 과거 비민주적 정치·사회행태에서의 구조적 모순점을 잘 지적한 표현으로 ...” (강호철, 1993: 69)

“... 당시 조경에 대한 국가지도자의 지대한 관심, 청와대 조경담당 비서실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기도 하였지만, 국토종합계획에 의한 고속도로주변설계, 관광레저단지계획, 댐주변, 공업단지 내 조경, 항만, 비행장조경, 사적지개발, 국립공원집단지설지구 등 당시의 막대한 지원과 인력으로 서로 감당하기 힘든 내용과 양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발주되었다. ... 작품의 질적 내용의 추구에서는 전문성의 인정보다는 결정권자의 영향력과 전체 사업의 일정에 맞추는 경우가 허다하여 ...” (장태현, 1992: 91-92)

아름튼 조경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권력지향성은 새로운 전문영역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그 발전적 업역을 개척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여 때문에 조경설계의 전문성을 왜곡하거나 편파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설계란 보다 자유로운 정신을 보장받을 때, 보다 더 창의적이 되기 때문이다.

### 3. 傳統踏襲性: 작품이 전통요소를 과용하는 경향

전통답습성은 조경설계에서 무비판적으로 혹은 무사안일하게 한국적 전통조경을 추구하는 경향이다. 이 전통답습성은 ‘전통모방성’과 ‘전통계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모방성은 설계과정에서 과거의 특정한 설계를 원형대로 복사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경향이다. 전통계승성은 역사경관의 재현이다. 이것은 비록 식재문제가 있긴 하여도, 고증만 있다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기법이다. 전통계승적 경향은 가치있는 전통성을 현대의 조경설계에 응용하여 보다 한국적인 설계를 추구하는 경향이다. 이런 점에서 전통계승적 경향은 역사경관의 발전적 응용이다.

열개의 작품에서도 조경설계의 목표에서나 설계기준에서나 혹은 상세설계에서 한국적, 한국전통, 역사경관, 전통조경 등의 이름으로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 이 경향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조경에서 전통주의 논쟁은 기실 건축에서 전통성의 그것에 비하면 그리 큰 쟁점은 아니다. 조경적 전통계승의 방향과 과제는 대개 합의된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에서 나타나듯이 조경의 전통계승 문제는 과거의 것을 답습하려는 것이 대안은 아니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듯 하다.

“남의 흉내내는 것이 아닌 한국의 조경만이 가질 수 있는 전통을 보여주는 현대적 조경을 해야 ... 문화적 감각으로 한국적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정재훈, 1993)<sup>12)</sup>

문제는 역사경관의 표면적인 것이거나 상투적인 것만을 설계주제나 장소에 관계없이 재현하는 ‘전통맹종’에 있다. 이 맹종은 때에 따라서 고증에도 맞지않는 왜곡된 전통을 오용하는 문제까지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식재설계에서 흔히 있는 소나무 군식기법과 향나무 취향이다. 그리고 공공조경이나 국가적 규모의 조경에서 예외없이 나타나는 ‘조경의 뿌리찾기’는 대부분 전통재현주의에 머무르고 만다. 다음의 두 글에서 잘 지적하고 있다.

11) 「상세서」: 35.

12) 한국조경학회 편 (1992) “한국조경 30년 회고” 「전세서」, 17.

“일본정원적 요소들이 현대공간에 빈번히 도입되는 것도 문제이다. 조형향나무를 주제로 한 기교를 부린 배식처리, 아기가기한 자연석쌓기, 변화가 많은 연못과 다리 ... 장식적 요소로서 ... 몇가지 디테일을 구사한다고 전통성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규목, 1992)<sup>13)</sup>

“... 독립기념관계획은 한국의 전통적 조경양식의 계승 및 발전이라는 현 한국의 조경이 당면하고 있는 갈등, 다시 말하면 전통양식을 현대조경계획 또는 설계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갈등을 그대로 내재하고 있으나, 그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된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는다. ... 여러 전통적 요소들은 그것들이 왜 그곳에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설명되지 않으며...” (김성균, 진양교, 1993)<sup>14)</sup>

전통답습성이 그런대로 인정받는 설계차원이 되는 예는 드물다. 다음 글은 그러한 경우이다. 다만 관광지의 전통재현적 조경이란 곧 관광상품으로서의 기능이기에 비교적 쉽게 용인되는 편이다.

“경주보문관광단지 는 국제관광객 유치 를 위한 최초의 집약적 관광단지로서 한국전통의 공간요소를 효과적으로 현대 조경설계에 응용한 예로 인정되는데...” (이규목, 1993)<sup>15)</sup>

한편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특징으로서 나타나는 고전적 모티브의 응용을 ‘전통주의’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전통적 요소는 ‘줄거리’를 지니고 역사적 참조를 하는 기회인 셈이다. 파리공원의 이원론적 공간구성이나 포장 등 상세설계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요소의 현대화는 프랑스의 그것과 대비되어 더 상승효과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그에 비하여 이 조경의 전통 답습성은 다분히 국수주의적 냄새까지 풍기는 역사적 고유성을 주장하는 듯이 보인다.

#### 4. 記念碑性: 기념비적 주제의 작품이 범람하는 경향

기념비성은 조성된 경관이 주로 초인간적인 기념물에 의존하여 목적하는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 등을 기리고자 하는 경향이다. 조경의 특정목표

에 따라 기념이 주제가 되는 예는 매우 흔한 것이다. 다만 그 기리는 방법에 차이가 난다. 기념대상과 기념자의 관계에 있어, 기념대상이 주도적이며 위압적인 강요를 하는 ‘초인적 기념비성(Monumentality)’와 양자의 관계가 서로 호혜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하는 ‘인간척도적 기념성(Memoriativity)’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념설계에서는 그 기본 형태를 수직물, 지형경관, 파빌리온, 구조물, 조각형태 등으로 간주한 바 있다. (Creighton, T. 1962: 45) 즉 다양한 설계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경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향은 단연 초인적 기념비성의 경향인 것이다. 여기에서 추구되는 것은 교훈적 경관을 통한 형식적이지 초인적인 기념비적 설계 경향이다. 당연히 수직적인 기념물을 내세우며, 축이 강조되고, 공간적 위계가 매우 권위적으로 확립되며, 대개 거대한 형상으로 그 규모로서 압도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다음 글에서 그러한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 거대주의라고 일컬을 만큼 대체로 초대형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념공원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된 올림픽공원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아직까지 한국 역사상 초유의 것으로 인정된다.” (김영대, 1993)<sup>16)</sup>

이에 비하여 인간척도적 기념성은 외형적 규모에 의하거나 기념적 증거의 과대전시를 통한 기념방법이 아니라, 내용적 전달이나 적정한 공간 연출을 통한 기념방법이다. 여기에서는 땅이 지닌 장소성을 재현하거나 당시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혹은 은유적 상징성을 도입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즉 특정한 경관조성을 통하여 그 기념가치를 인간척도를 존중하면서 극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케네디대통령의 묘지에 연출된 영원한 불꽃은 참배객이 내려다보는 돌 포장 바닥에 피워진 조그마한 불길일 뿐이다. 다음의 서대문독립공원의 비평인용에서는 사실적 재료의

13) 「상계서」, 8.

14) 「상계서」, 99.

15) 「상계서」, 183.

16) 한국조경학회 편 (1992)「전계서」, 99.



응용을 통한 기념성 추구기법을 볼 수 있다.

“... 그 위치가 갖는 역사적 의미 외에도 형무소 건물들에 사용되었던 적벽돌을 그대로 공원시설 등에 사용함으로써, 현재 창출된 장소적 분위기가 본래 작품이 추구하는 역사적 의미와 잘 걸맞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김경운, 1993)<sup>17)</sup>

우리의 조경에서 나타나는 기념비성은 대부분 초인간적인 기념비적 경향이다. 또한 대개 기념물을 중심으로 조경은 단순히 배경적 역할을 하는 소극적 설계 경향을 보인다. 강요하는 비인간적인 기념비적 설계는 대개 기념행사장이 될 뿐이다. 그곳에서는 기념대상과 참배객 사이에 ‘벽’이 가로지르며, 상하의 위계가 형성되는 혼시조의 엄격함이 지배적이기 마련이다.

##### 5. 非脈絡性: 설계의 맥락성이 결여된 경향

비맥락성은 조경설계가 그 부지 경계에 한정되어 내부지향적이거나 외부위압적인 경우를 보여주는 경향이다. 이 경향은 설계단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경설계적 추구를 통하여 의미있는 경관을 형성하고 새로운 공간을 구축하여서, 주변에 비하여 그리고 현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더 ‘좋은 조경’을 추구하는 자이중심적 조경설계가 지닌 특성이다. 즉 조성된 설계가 그 주변과의 공간적 또는 시각적, 혹은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융화가 되지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비맥락성은 ‘내향적 비맥락성’과 ‘외향적 비맥락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향적 비맥락성은 조경설계가 부지 경계를 넘지 않고 내부완결성을 의도한다. 이러한 조경설계에서는 차폐식재와 같이 경계가 강조되며, 설계프로그램이 자충적이며, 주위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장소창조적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상황에서 이 경향은 어쩔 수 없는 대안인지 모른다. 이에 비하여 외향적 비

맥락성은 조경설계가 주위에 대하여 과시적이며 특정한 영향력을 강조하되, 외부에서의 접근은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그 지역경관에서 두드러진 자체경관을 내세우는 방식이다. 대개 상업주의조경이나 기념비적 조경에서 쉽게 나타나기에, 우리의 조경에서 흔한 설계경향의 하나인 것이다. 다음 두 글에서 맥락성의 과제를 두고 이러한 비맥락주의로 흐르는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 주변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 또는 맥락성을 유지하느냐가 그 시각·경관적 질과 함께 중요시되어야...” (김영대, 1993)<sup>18)</sup>

“... 연계성 즉, 맥락성 구현이라는 이슈에 대해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진양교, 1993)<sup>19)</sup>

비교적 받아들여지는 비맥락성의 경향은 그 도시맥락과 주된 건축 사이에서 접근성과 스케일감을 살린 경우에서 흔히 나타난다. 다음 두 글에서는 긍정적인 비맥락적 평가라 할 수 있다.

“... 씬지공원은 현재 근린주민의 근린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규복, 1993)<sup>20)</sup>

“...한국종합무역센터 광장의 경우, 지하철 유입보행 흐름 및 주변지역 상부 보행흐름의 연계를 외부공간 설계의 주요목표로 실행했는데, 그 결과가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강호철, 1993)<sup>21)</sup>

그런데 비맥락성은 때로는 소우주주의적 발상에서도 나타난다. 소우주주의(microcosm)는 조경설계에 있어서 설계가가 은연 중에 취하는 선호경향일지도 모른다. 예술의 전당에서 나타나는 독자적인 경관의 구성과 장소성의 확보는 그 광장과 마당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예술지상주의의 관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주변과 조화되거나 개방적인 공간구성의 설계방향은 매우 비현실적일 수

17) 「상계서」, 99.

18) 「상계서」, 99.

19) 「상계서」, 99.

20) 「상계서」, 19.

21) 「상계서」, 99.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우주주의는 결코 만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관은 본래 그러한 경계가 없었으며, 도시의 한 부지 또한 흐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 6. 過設計性: 작품의 내면보다 외형이 과잉된 설계 경향

과설계성은 조경설계 자체가 지닌 문제성향의 하나이다. 즉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과도한 물량위주로 흐르는 경향이다. 과설계성은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조경설계를 통하여 '무엇인가 큰 변화'를 이루고 대규모 혹은 여러 다채다양한 소재 투입에 의하여 '대단한 효과'를 보려는 '조경설계만능주의'이다. 과설계적 경향에서는 조경설계가 주제와 성격에 적절하고 필연적인 장식(Ornament)이 아닌 표면적이거나 장식을 위한 장식, 즉 치장(Decoration)에 흐르게 된다. 이것은 단순함에 반대된다. 물론 단순함이 최선은 아니다. 그러나 자연생태가 표출하는 단순미는 조형적 지루함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의 조경현실에서 흔히 나타나는 왜곡된 조경 공정문제, 즉 모든 시공 후 식재위주로 치장하는 조경에서는 이 과설계주의는 더욱 표면적인 치장을 강조하며 눈가림식 마감처리로 나타난다. 그것은 어설픈 설계만능주의자의 환상의 결과이며 '무엇인가 많이 그려넣어야', 소위 '설계를 한 것 같은' 오류를 범하는 조경의 과소비 문제이다.

나아가서 시간적 차원의 과설계적 경향도 있다. 이것은 시공과 조성관리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무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특정한 경관조성이라는 완공의 효과를 기하는 경향이다. 자연의 생태가 필요로 하는 변화의 시간마저 무시하고 '최종그림'을 급조하는 문제이다. 수목효과를 단순간에 최대한으로 내리는 대형목 식재나 상록수위주의 식재, 시공순서와 기간을 무시한 공기단축, 의식수준과 이용행태를 너무 앞선 유행성의 공공조경설계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다음의 지적은 이러한 문제를 잘 지적하고 있다.

“...조경이라 하는 것은 유묘나 중형목을 적절히 배치하여 장차 나무가 성장하고 잔디가 자라서 피복이 되면 완성된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이 공사의 특성이므로 준공시점이 완공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오휘영, 1987: 17)

결국 과설계성의 결과, 한 조경작품이 너무 많은 '주장'과 '연출'을 거의 엇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앞에서 나타난 무주제성의 경향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주변에 조성된 조경작품(설계, 시공)에서 작품이 추구하는 가치를 읽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김용규, 1993: 77)

가치부재란 측면에서 위의 글은 이 과설계성을 지적한다고 하겠다. 어느덧 두드러진 설계의 주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더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 제6장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지난 30년 간 우리의 조경이 지니온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경가치의 체계와 조경작품의 성층과 조경비평의 유형을 조감하는 조경설계경향 분석을 위한 접근 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문가집단의 설문조사, 대상작품의 설계적 분석 그리고 전문비평의 인용 등을 시도하였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조경은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그런데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조경의 위상을 살펴보면, 현수준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한 반면 조경의 미래에 관하여서는 비교적 낙관적임을 알 수 있었다. 문제점 으로서는 조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가치의 열세 등 외적 상황에 더 큰 비중을 두는 태도가 나타났으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해서는 조경계 내부적인 노력 즉, 실천적 연구의 탐구와 설계 능력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우선적으로 보았다. 우선적인 조경설계의 가치를 기능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중심으로하여 생태적 보전지향의 설계, 심미적 예술성을 갖춘 설계 등에 더 비

중을 두는 것이었다.

추천된 10개 작품을 중심으로 지난 30년의 조경설계 경향을 개관하면, 무엇보다도 확대되는 주제와 영역에 비하여 그리 다양하고 심오한 설계 내용을 스스로 이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비록 미미하지만 변화가 나타났으니, 역사와 기념 중심에서 행태와 생태 중심으로, 문화재와 역사적 성역 중심에서 자연과 인간 중심으로, 대규모적 사업 중심에서 소규모적 관심 중심으로, 상록식재 중심에서 낙엽식재 중심으로 조경설계의 관심이 바뀌어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크게 보아 조경설계의 경향이 '내용적 단순함'에서 '외형적 다양함'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개관 속에서 우리의 조경설계가 지닌 몇가지 현상을 종합하건대, 여섯가지 특징 즉, '무주제성', '권력지향성', '전통답습성', '기념비성', '비맥락성', '과설계성' 등을 이 시대의 두드러진 조경설계의 경향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조경설계의 위상을 긍정적으로 드높인 역할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조경 현실을 대변하는 일종의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경향에서 보듯이 지난 30년 간의 우리의 조경은 그 설계양식적 차원에서 '무양식적 양식'의 시기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정신을 정당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제한적이었으나 인용된 전문비평에서는 우리의 조경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논조가 강하였으며, 그러한 시각은 각 작품의 분석에서 잘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집단의 설문조사에서는 현 상황을 극복하려는 긍정적 전망을 보여주므로, 장래 조경설계의 발전은 오히려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작품추천에 대한 설문응답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6%인 211명이 무려 38개소를 추천하였으며, 이 중 상위 다섯 작품까지는 비록 10명 이상이 추천하였으나 나머지 작품 중 24개 작품은 겨우 1명 내지 2명이 추천하였던 것이다. 즉 조경인 사이에서도 조경설계의 질과 가치를 공감하는 여론 형성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또

한 조경인이 주변에 어떠한 조경작품이 조성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하여 조경설계의 외적인자가 작품 창작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전반적인 분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조경인은 스스로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하며, 조경설계의 전문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립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재확인되었던 것이다.

처음 연구의 범위에서 되도록 예술로서의 조경에 관심을 두기로 하였으나, 분석의 과정에서 예술 이전에 기능과 생태와 행태를 위한 설계 가치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런데 과학과 예술 사이에서 조경설계가 취하는 비중은 기실 모두 중요할 것이나, 소위 '작품성'을 위해서는 조경이 지닌 예술적 가치와 윤리적 규범이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향을 과학과 예술이라는 양극 사이를 오가는 주기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또다른 30년은 조경의 작품성을 구현하는 차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경인 스스로 자신과 주변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이 앞서야 할은 물론 실천적인 설계 교육의 강화, 공정한 설계 경기의 확대, 창의적 설계 정신의 확산, 정당한 비평 풍토의 정착 등 조경계의 자발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향후 이러한 방향으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강호철 (1993) "한국 현대조경의 현주소", 「환경과 조경」, 67.
2. 근작 (1993) "분당 중앙공원", 「환경과 조경」, 59.
3. 기술총괄처 조경부 (1994) 「아름다운 공원 : 조경설계 및 시공사례」, 한국토지개발공사.
4. 김영대 (1987) "설계과정에 있어서 개념의 형성에 관하여" 「환경연구」, 영남대학교 : 6(2).
5. \_\_\_\_\_ (1992) "우리나라 도시조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시문제」, 27.
6. \_\_\_\_\_ (1995) "모더니즘조경의 설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2.
7. 김용규 (1994) "조경은 과연 종합과학예술인가?" 「환경

- 과 조경», 73.
8. \_\_\_\_\_ (1993) "가능유일의 세계를 향하여", 「환경과 조경», 67.
  9. 문화공보부 (1975) 「현충사 연혁지», 문화재관리국.
  10. 배정환, 조정승 (1993) "조경비평의 이론과 방법론 모색", 「한국조경학회지», 21.
  11. 서울특별시 (1992) 「서울의 조경», 서울특별시.
  12. 오휘영 (1987) "하자와 그 책임소재", 「환경과 조경», 15.
  13. 유병림 (1989) "디자인과 계획이 같지 아니한 근본적인 몇가지들", 「터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속 환경계획연구소 : 2.
  14. 유희준 (1980) "건축작품의 디자인 평가상의 평가스케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4:95.
  15. 이정덕 (1990) "건축학의 이상향", 「건축», 대한건축학회 : 34 (5).
  16. 작품노트 (1991) "경주힐튼호텔 / 선재 현대미술관", 「공간».
  17. 장대현 (1992) "조경설계의 흐름과 방향", 「환경과 조경», 51.
  18. 정영선 (1993) "한국조경연구의 성찰과 평가", 「도시·환경분야 연학의 성찰과 전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15.
  19. 조경진 (1993) "현대서양조경에서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과 그 의미", 「한국조경학회지», 49.
  20. 조정승, 안건용 (1993) "조경설계작품평가의 기준과 항목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1 (3).
  21. 편집부 (1994) "건축계의 의식 설문조사", 「플러스», 82.
  22. 편집부 (1986) "한국조경의 현황과 미래를 진단한다", 「환경과 조경», 12.
  23. \_\_\_\_\_ (1993) "조경문화와 평론", 「환경과 조경», 58.
  24. 프로젝트 (1988) "한국종합무역센터 조경기본계획", 「환경과 조경», 23.
  25. \_\_\_\_\_ (1988) "예술의 전당 조경계획", 「환경과 조경», 26.
  26. 한국조경학회 편 (1992) 「현대한국조경작품집», 서울 : 도서출판 조경.
  27. Baljon, Lodewijk (1992) *Designing Parks*, Amsterdam : Architectura & Natura Press.
  28. Broadbent, Geoffrey (1973) *Design in Architecture*, New York : John Wiley & Sons.
  29. Brookes, J. et al. (1984) *Garden Design*, New York : Simon & Schuster, Inc..
  30. Creighton, Thomas (1962) *The Architecture of Monuments*, New York, Reinhold Publishing Corpora
  31. Crowe, Sylvia (1994) *Garden Design*, Suffolk: Garden Art Press.
  32. Frankel, F. and J. Johnson (1991)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 Rethinking the Garden*, New York : Abbeville Press Publishers.
  33. Goode, P. and M. Lancaster (1986) *The Oxford Companion to Gardens*, Oxford : Oxford University
  34. Harvey, S. ed. (1987) *Reflections on Landscape Architecture : Redefining the Garden*, New York : Abbeville Press Publishers.
  35. Harvey, S. ed. (1987) *Reflections on Landscape*, London : Hants, Gower Technical Press.
  36. Harvey, S. and S. Rettig ed. (1985) *Fifty Years of Landscape Design*, London : The Landscape P
  37. Jelicoe, G. and Susan (1987) *The Landscape of Man*, London : Thames and Hudson Ltd.
  38. Jencks, C. (1986) *Modern Movements in Architecture*, Middlesex : Penguin Books.
  39. Kassler, E. (1986) *Modern Gardens and the Landscape*, New York : The Museum of Modern Art.
  40. Lyall, S. (1991) *Designing the New Landscape*, London : Thames and Hudson. Newton, N. (1971) *Design on the Land*, Cambridge :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41. Papanek, Victor (1984) *Design for the Real World*, Chicago : Academy Chicago Publishers.
  42. Pregill, P. and Volkman (1993) *Landscape in History*,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Risdon, Matthew (1992) "Landscape Design : the Future" 「Landscape Design», July/August: 26-27.
  43. Thacker, C. (1979) *The History of Gardens*,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4. Treib, M. ed. (1993) *Modern Landscape Architecture : A Critical Review*, Cambridge : The MIT Press.

[부록 1] 설문지 양식

우리나라 조경작품의 설계 경향에 관한 설문조사

A. 먼저 귀하의 신상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 1. 나이 : [     세     ]                      2. 성별 : [ 남, 여 ]
- 3. 직종 : [설계, 시공, 교수(설계전공), 교수(설계 외 전공), 대학원생, 공무원, 조경언론, 기타]
- 4. 경력 : [     년     ]                      5. 활동지역 : [           시/도     ]
- 6. 국외체류한 경우 : [ 체류국:           기간:     년, 활동:

B. 이제 실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문항에서 귀하의 의견을 한가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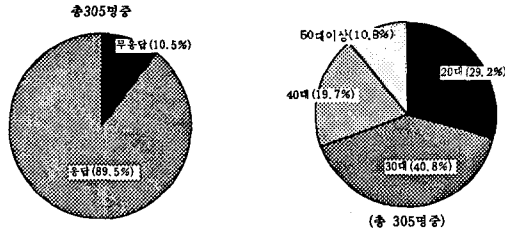
- 1. 현재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질적 수준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	-----	----	-----	--------
- 2. 생활수준, 환경, UR 등 변화를 고려할 때 장래의 우리나라의 조경설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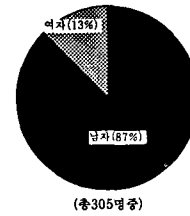
매우 낙관적	낙관적	보통	비관적	매우 비관적
--------	-----	----	-----	--------
- 3.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질적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 ① 조경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다
  - ② 조경의 전반적 과정 중 설계에 대한 가치 부여가 매우 미미하다
  - ③ 조경설계가의 자질과 능력이 미흡하다
  - ④ 전통에 대한 인식이 결핍된 반면 외국 조경 영향에 매우 민감하다
  - ⑤ 건설 전반적 현장에서 조경부문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세이다
- 4.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 ① 조경설계가의 교육강화와 능력의 배양
  - ② 현실조건에 대한 실천적 탐구
  - ③ 조경비평과 논쟁의 활성화
  - ④ 공정한 공개경쟁 기회의 확대
  - ⑤ 조경설계 용역비의 증대
- 5. 이 시대에 우리나라 조경설계가 갖추어야 할 가장 절실한 작품적 가치는?  
  - ① 생태적으로 보전지향의 설계
  - ② 기능 및 행태적으로 합리적인 설계
  - ③ 사회공공적으로 윤리성을 갖춘 설계
  - ④ 심미적인 예술성을 갖춘 설계
  - ⑤ 실험적인 창의성이 뛰어난 설계
- 6.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시는 조경작품은?

〔부록 2〕 설문조사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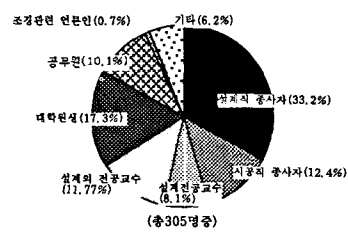
2-1 응답자의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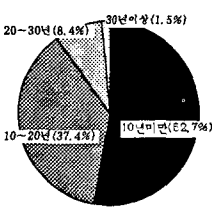
2-2 응답자의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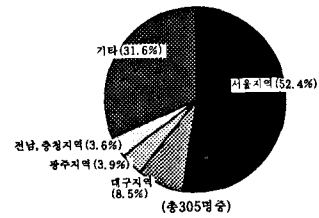
2-3 응답자의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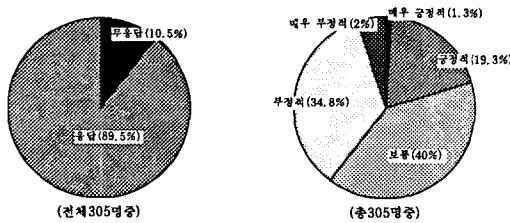
2-4 응답자의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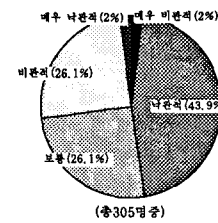
2-5 응답자의 활동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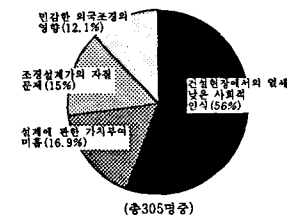
2-6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질적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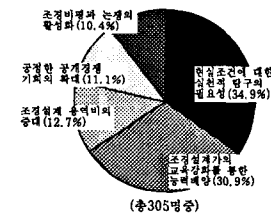
2-7 장래 조경설계에 대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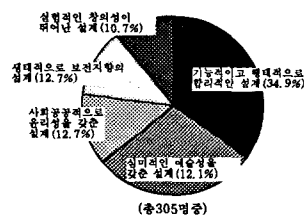
2-8 조경설계의 질적 수준에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점



2-9 조경설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



2-10 조경설계가 갖춰야 할 가장 절실한 작품적 가치에 관한 문제



2-11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조경작품의 추천

